

지난해 기후 재난으로 930억 달러 손실



▲ 지난해 3월 토네이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진 루이지애나의 주택가 모습. 사진=pbs.org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930억 달러에 달했다고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OAA는 전날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에서는 피해 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후 재난이 28건 발생해 총 9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홍수와 폭풍 피해는 아직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낸 대규모 기후 재난은 2020년의 22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 중에는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과 캘리포니아주 홍수, 미 중부에서 발생한 두 건의 토네이도 및 대형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이 포함됐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 고온 현상도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전체 평균 기온은 NOAA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5번째로 높았다. 12월 한 달 평균 기온도 NOAA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NOAA 수석 과학자 사라 카프닉은 "지난해 기후 재난의 맹공에 미국인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며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가 앞으로도 지속될 뿐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공항 검색대서 적발된 총기 역대 최다 ... 93% 장전 상태

지난해 미국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전날, 지난해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해 기내 반입을 차단한 총기가 모두 6천737정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93%는 장전된 상태였다. 작년 총기 적발 건수는 직전년도(2022년)의 적발 건수(6천542정)를 뛰어넘어 역대 연간 최다를 기록이다.

공항별로 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공항이 451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텍사스주의 댈러스-포트워스 공항이 378정,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공항이 311정 순이었다.

남가주로 한정한다면 LA국제공항, 롱비치 공항,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 존 웨인 공항 그리고 온타리오 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서 적발된 총기는 모두 81정이었으며 이 가운데 87%는 장전 상태였다.

페코스케 TSA국장은 "승객은 장전하지 않은 총기류만 소지할 수 있으며, 잠긴 하드 케이스에 넣어 위



▲ 애틀랜타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 사진=TSA

탁 수하물로 부치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에 먼저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TSA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총기가 발견되면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해 승객과 총기를 검색대 구역에서 빼내게 하며 승객을 체포할 수도 있다. TSA는 총기를 소지한 승객에게 최대 약 1만5천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멕시코, 미국 최대 교역국으로 등극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중국이 아닌 멕시코로 바뀌고 있다. 수년째 지속된 미·중 갈등 영향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통계청은 9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미국의 연간 국가별 상품 수입액 순위에서 멕시코가 4,389억8,600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원조 수입국'인 중국은 3,931억3,700만달러로 뒤처졌다.

미국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은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사들이고, 중국은 달러를 축적하며 미·중 중심 무역 질서를 확립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정세가 크게 변화했다. 2020년 출범한 조 바이든 정부 또한 해당 조치를 대부분 유지하며 중국과 대립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18년 3월 이전까지도 미국 총수입액의 21.8%를 차지하던 중국의 점유율은 2023년 11월 13.9%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수혜를 입으며 신종 '미국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미국이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한 영향이다.

미국 기업들도 멕시코를 새로운 공급망으로 낙점했다. 미국과 접경국인 동시에, 임금과 토지가 여타 북미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